

벤젠 가격강세 당분간 지속된다!

유럽, 신증설 없고 Reformat 미국 수출로 ... PS 수익타격 막대

유럽 벤젠(Benzene) 가격이 20년 만에 최고수준으로 치솟고 있지만 증설을 통한 공급부족 해소 기미가 없어 장기강세가 예상된다.

따라서 벤젠 유도제품 생산기업들은 지속적인 원자재 코스트 압박에 시달리겠지만 원료가격 상승이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특히, 일부 플라스틱 시장에서 PP(Polypropylene)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PS(Polystyrene) 생산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말 이후 벤젠 계약가격은 약 60% 올라 2004년 4월 현재 톤당 566유로(684달러) 수준을 나타냈으며, Spot 가격은 톤당 750달러로 무려 70%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석유기업들은 미국의 휘발유 수요증가 바람을 타고 Reformat를 대량 수출하고 있다. 휘발유 혼합용 Reformat의 미국 수출가격이 운임을 공제하고도 이익이 남는 수준이어서 유럽 정유기업들이 미국수출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의 휘발유 수요는 자동차용 경유(Diesel) 수요증가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Reformat로 생산할 수 있는 벤젠은 50만~100만톤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영국의 방향족 컨설팅기업 International eChem은 벤젠 추가 공급에 필요한 원료 부족보다는 C7/C8에서 벤젠을 추출하는 플랜트 부족을 가격상승의 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잇따른 벤젠 추출시설의 가동정지가 벤젠 공급부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급상승 또한 벤젠 수요기업들이 재고 확보에 열을 올리게 해 가격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벤젠 추출시설이 부족하게 된 것은 2000년 EU(European Union)가 휘발유의 벤젠 함유량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통과시켜 벤젠이 일시적으로 공급과잉으로 전환되고 수익률이 떨어지자 유럽의 벤젠 생산기업들이 노후설비를 잇따라 폐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벤젠 생산능력이 줄어든 이후 수요는 연평균 4-5%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Styrene 수요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다른 벤젠 유도제품 시장도 비교적 빠르게 성장해 페놀(Phenol)은 페놀수지(Phenolic Resin)가 비교적 성숙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Bisphenol-A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유럽 벤젠 생산능력은 2002년 Shell이 2500만달러를 투자해 네덜란드 Moerdijk에 건설한 50만톤 추출 설비가 유일할 정도로 벤젠 신증설이 부진한 상태이다.

<화학저널 2004/07/07>